

공동체 소식

☑ 예수 성심 성월 안내

예수 성심 신심의 목적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 성심과 함께 또 예수 성심을 통해 사랑으로 보답함으로써 첫째 계명(신명 6,5; 마태 22,37-38; 마르 12,29-30; 루가 10,27)을 더욱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심 신심은 단순히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목숨까지 바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예수 성심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응답은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보답**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 동안 매일미사 3쪽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매미사 전과 가정에서 바칩니다.

-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시기가 끝나고 연중시기가 이어집니다.**

☑ 미사/사제연수 안내

- 6월~8월 본당 토요신심미사 없습니다.
 - Holy Trinity본당에서 6월~8월까지 평일 06:30, 토요일 07:30미사를 Stone Chapel에서 봉헌합니다.
 - 북미/중미 교구 사제 연수로 6월 11일(화), 12일(수), 13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사제연수 기간 : 6월 10일(월)~14일(금)
 사제연수 장소 : Alaska Anchorage 한인성당

☑ 교구대회 사전 본당모임

- 9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복사단 모임

- 16일(일) 미사와 식사 후

☑ 주일학교 교리 방학

8월까지 방학합니다. 개학은 추후 공지합니다.

☑ Holy Trinity 본당의 날 행사

지금까지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 HT본당의 날입니다. 14일(금) 오후 6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합니다. 우리도 애찬조에서 음식 간단히 준비하여 동참합니다. 교우분들 함께 하시어 본당의 날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평협회 안내

- 30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6월 구역모임 안내

2구역 - 15일(토) 오후 7시, 김호원 요한 가정
 12721 England st, Overland Park, KS 66213
3구역 - 15일(토) 오후 7시 30분, 박희영 카타리나 가정
 14205 Rosehill st, Overland Park, KS 66221
4구역 - 29일(토) 오후 7시, 차상욱 펠릭스 가정
 15334 Riley st, Overland Park, KS 66223

☑ 2차 헌금 안내

- 6월 9일에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CCC, 미디어를 통한 선교 후원)을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델 (27가정)

☑ 전례 성가

	입당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142	217	180	493
차 주	81	512	178	31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안젤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네스)
차 주	김시연(엘리사벳)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원(안젤라) 김정훈(로베르토)
차 주	차민서(임마누엘)	정예진(한나) 김정빈(바오로)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예레미야), 강승호(아오스딩)
차 주	감영진(라파엘), 조진환(베드로)

☑ 애찬 봉사자

금 주	7조: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 주	8조: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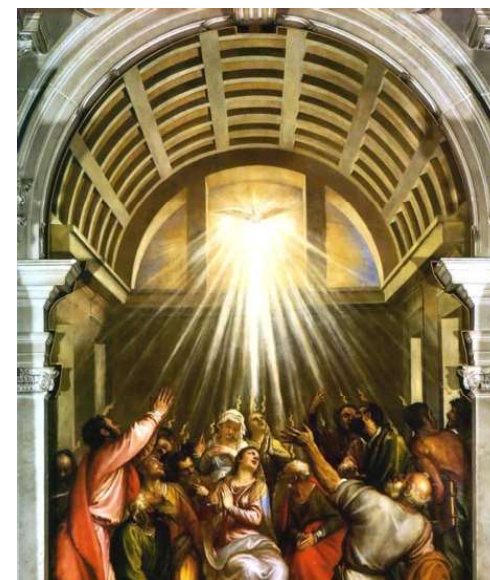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www.kckcatholic.org
 korean1481@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그림 묵상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 21-23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3c -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생명의 말씀

진리이신 성령님, 길을 알려주시고 함께 가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사명은 바로 성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과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부활로써 제자들은 확신을 갖고 활기차게 그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죄의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가 바로 교회가 완수해야 할 하느님의 정의를 이루고 있는 기초입니다. 이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요한 1,29)이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요한 10,15)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지극정성으로 이 사명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불확실성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화(shalom)와 기쁨(당신을 만난 체험으로 충만하게 마음을 가득 채운, 요한 20,20 참조)을 주시면서 파견하십니다. 이 평화와 기쁨은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할 때 동반할 것이며 세상은 무엇이 참 평화인지, 무엇이 참 기쁨인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특별히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는데 첫째 조건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막연하고 감정적인 감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요한 14,15 참조).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통하여(1요한 4,10 참조), ‘진리의 성령’께 힘입어야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며, 예수님의 영적이며 내적인 표지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는 단지 기억을 일깨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침의 모든 부분을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새롭게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해주십니다.

진리이신 성령님,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성령의 선물은

용서하는 권한은 용서해야 하는 책임을
영원한 사랑은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적인 평화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외로움을
당신의 선물은 우리가 기꺼이 그러하기를 초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나의 신앙의 전환점

어머니께서는 쌍둥이 미숙아를 목숨을 걸고 낳으셨고, 전 서울대학교병원 인큐베이터에서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삼 남매 중 막내입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보약을 입에 달고 살았고, 막내다 보니 어머니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하셨는데 매일 새벽 미사 참례를 해야 했고, 저녁에는 묵주기도 5단과 가톨릭기도서 전체 그리고 성경 말씀 1장을 읽어야 했습니다. 행여 반항이라도 하는 날에는 회초리는 기본이요, 밥도 용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정의 평화요, 세계의 평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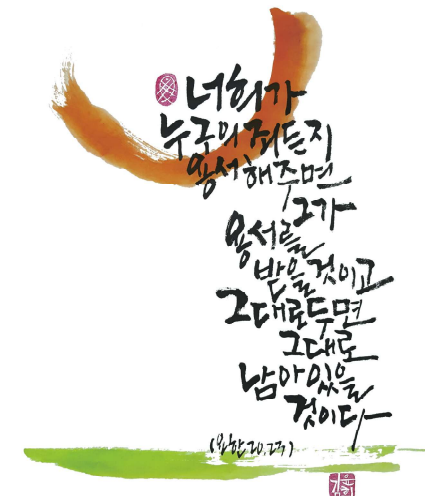
성인이 된 후 어머니께서는 각자의 기도 생활에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 중에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994년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소 충격적인 김일성의 사망 뉴스를 접하고 있을 때 저는 깊은 한숨과 절망감을 안고 병실에 누워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찾아오는 통증과 앞으로 닥쳐올 수술의 공포감보다 더 힘든 것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었습니다. 1년 동안 지옥 같았던 8차례의 수술이 이행되었고, 평소 운동으로 다져졌던 건장한 몸은 병간호하시느라 피골이 상접하신 어머니가 업고 옮길 정도로 앙상하고 초라한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저의 처

지에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았지만, 철없는 막내아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 지루한 병원 생활도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왔던 신앙교육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위안도 받았습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보며 반성도 하게 되니 죽어있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서 소박한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평생 목발을 짚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참기 힘든 고통과 흥터는 남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걸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제 고통의 흔적 속에 하느님께서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소소하고 평범한,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시련을 통해 저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임두빈 안드레아 | 생활성가 가수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김윤희 안드레아